

사실

또다시 고개든 대국민 사찰

해고노동자, 학생회간부등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발전해 보안사 사찰이후에도 운동권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지난 16일 부산 감전동에 위치한 신발제조업체인 금호상사에서 8천여명에 달하는 인문신상명세를 수록한 컴퓨터디스크가 발견됐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구로공단, 마창노련 등 전국 주요공단 해고노동자와 대학생등을 망라해 현주소, 특기사항등 7개항목에 걸쳐 사찰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보다 며칠 앞선 지난 13일에는 대우조선 인력운용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돼 노조간부사찰과 대외원전 기전장등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계에 블랙리스트가 활보하는 것은 노동운동권에서 거세어지는 경세와 무관하지 않으며 정보공작으로 경권을 유지할수 밖에 없는 6공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것이란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대우이 대우조선과 금호상사 블랙리스트 발견은 기업사찰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번째 발견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더 놀라움은 기무사, 안기부의 관련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대우조선의 경우 서보트 상시적으로 노무동행이 회사측에 보고

'범죄와의 전쟁' 1년후

경찰이 쓴 총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의 유해가 전남 구례에 안장된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청은 발표행위에 대해 경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원씨에게 총을 쏜 조동부경위의 발표에 대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를 들어 파출소장의 무기사용은 적법하고 파출소가 화염병으로 무자백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총기사용은 형법 20조에 따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동부의 발표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과실치사죄도 성립될수 없으며 다만 숨진 원씨 유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만 거론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원씨의 경기에 치러진 뒤 현행행위를 운운하며 발표를 대체하고 있다. 대우이 '총기사용에 안전수칙은 수칙을 갖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내부의 규칙'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이 총기사용을 하는데 있어 안전수칙이 구속력이 없는 경찰내부의 수칙으로 끝내버린다면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총기사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무방비로 당하고있던 발인가.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경찰청측의 주장이고 검찰은 26일 조동부위를 소환, 조사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

주간강의 확성기 사용했으면

나는 야간강좌를 좋아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수업분위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잘 안들리는 것으로 인한 수업의 피해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야간강좌시간 외에 주간강좌시간은 어떻게 될까? 소음으로 인해 교수님의 목소리가 안들리는 것은 물론, 분위기가 산만한 수업조차 들이기는 것이 싫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무성하게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입을 자제하고 다른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복도에서 떠드는 것도 삼가하고 각종 행사 및 중대행사의 연습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한

주간강의 확성기 사용했으면

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처사이다. 열마진 홍익대학교의 교수 조병평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같은 모토지만 내가 아는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름의 박사들이 수두룩한 것 같았다. 이처럼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교수와 학생간의 비호적화 및 단교학원칙의 한 강과에 대한 여러사람의 강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시간의 소음이 앞서 말한것과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라고 따지다면, 수업시간의 소음은 단순한 소음 해결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면담해결이 조성차원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다양한 강좌 및 복수강의 제도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 학교는 말쑥한 자율적수업선택이다. 이러한 수업선택의 물자유와 관련한 수업집중성이 떨어지려는 결국 만성적 교수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학교측에 미분책이나 바라는 것은 강의시간중에 확성기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장 오 성 (정심대 무역학과)

열린글터

전동국인이 화합단결하는 불상증건돼야

우리민족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슬픈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남아있는 선조들의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민족의 힘과 뜻으로 만든 문화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힘과 교훈을 줍니다.
특히 밖으로 미제에 의한 억압과 속박과 굴종이, 안으로는 예측불가능한 경제, 경제의 파탄으로 민족의 생존과 민족의 통일은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학교도 이러한 민족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의 뿌리는 학원에도 침투하여 학원안정화대책을 중심으로 학원의 분열과 타협의 음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학칙이 개정되었고, 다른 학교의 학부위 탄압, 장학금 시비 등 여러곳에서 그 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상이 처음 건립될 때, 선배님들께서 조국통일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구현을 가장 큰 의의로 하였던지, 지금 상상증건의 의의는 전 민족의 통일영원을 담고, 학원 탄압을 막아내기 위한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의 아래 그동안 실시되었던 동국의 자긍심은 모든 학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교수님과 직원, 학교의 힘이 한 곳에 뭉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상증건에는 학교당국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협조 이전에 모든 동국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은 이러한 취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생들이 먼저 '상상증건추진위원회'를

학사제적부활 학원탄압 빌미일뿐

지난 6월8일은 우리에게 잊혀질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원의 총리서리 얼굴에 없던 단감 핏자국이 우리의 친구와 동지들의 피로 뒤덮였던 얼굴과 외침소리는 끝내 울렸던 5월과 함께 찾아들어버리고 정부와 학교당국의 철저한 대학장악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대강한자 이제 한발, 우리 주위에는 방화중에 우리가 무관심했던 사이 갖가지 학원탄압사태가 속속 날아오고 있고 중의 생존권요구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지난 17일 분교에서도 발표된 학사제적부활 규정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

대학생, 개정 한글맞춤법의 맹인

88년 1월, 교육부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언어생활'과 동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 규정들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는 한글맞춤법 총칙 제1항 '소리대로 띄어쓰기에 맞도록...'이나 표준어규정 '모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의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언어생활에 맞춘 개정이었다.
89년 3월부터 시행된 맞춤법의 가장중요한 내용은 '음운다'의 '습니다' 표기법만 정은 일상언어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표기하는 대학생들의 자보들은 저절원 수준이다. 표기법이 바뀐 부사어는 '돌아가고'라는 '습니다'나 '더욱' 등의 일상언어에 대한 대학생의 무지는 문자와 가장 많이 접한다는 대학생의 언어생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무절제한 자유가 캠퍼스 환경 위협 '사랑'으로 도덕성 되찾자

책이 문드러져 버린 우리들의 양심과 수렁에 처박혀 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외쳐왔다면 바로같은 것일까?
몇 주일 전 후배녀석이 도서관 앞 길가에 매달아 놓아 실없는 웃음만 보이고 있었다. 이유를 묻자 심오만원짜리 카세트를 도난당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가방속에 넣어 두었는데 말이다. 정말 어이없는 웃음만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나는 소중하게 다루던 영한사전을 분실했다.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책이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분실에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물건의 값이 문제가 아님을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추석이 되기를 이틀전쯤인 게다. 야간강좌수업도중 요란한 다연발의 폭음이 강의실을 울렸다. 모두를 금방한 얼굴로 복도 창문으로 몰려나갔다. 그 광경인즉 동국관 앞 큰길에서 신문을 갈아놓

고 술잔이 벌어지고, 폭죽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교수님 한분은 "이것을 봐! 지금 수업중인데 뒷돌하고 있는 거야?"하며 소리쳤고, 학생들은 어이없는 듯 멍하니 바라보며 "개편이군"이라는 말을 연발하고 있었다. 조용히 해달라는 학생들의 외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날때까지 그들의 노래소리는 끊어질 줄 몰랐다.
이제 우리 동국의 교정은 놀이터로 변해버렸고, 반달반달한 공터로 되어버린 정원은 케케한 딱정리 녀석새를 내뿜고 있다. 담배꽂초,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교정 어느 곳에서든지 밤늦게까지 술과 노래로 떠들며 대는 일은 흔한 일로 치부되어 버리고 불감증에 걸린 우리의 일상생활로 침전되며, 무더기 무더기의 피부병 잔치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기출애 줄지어 않아 있는 참새떼처럼 도서관앞에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며 투덜대는 일이나, 자신이 버린 담배꽂초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탓으로만 떠넘기려 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들이 어찌 외부인의 소행으로만 떠넘겨질 수 있었는가? 무너져 버린 우리의 양심부터 바로 세워야 할 일이다.
교정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떨거나 바라만 보고 있는 학교당국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사정할줄 모르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진실이 왜곡되고 믿음이 쓰레기장에 처박혀 버린 현실속에서 우리 대학원자 거지고 있어 할 것을 잃어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이다. 동학을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행동의 아름다움이다.
동학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이다.
이 한 모(사회대 사회학과)



소극적 여성 - 권위적 남성 탈피

제2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제7대 하나되는 여학생회에 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여성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깨고 활달 '인식적 남성상의 개선을 위한 제2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를 많은 교민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학원내에 그리고 이십몇년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여자가 때문에', '여자는 팔이야...', '사내자식...' 등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측면에서 이번 학교의 조그만 의의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교육과 각종 관습에 의해서 오래된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허허이 찬 남성상을, 늘 참고 따뜻하고 착한 여

사고하는 민주남성을 위해 참가하고픈 많은 학우들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행사를 살펴보면 여성이기에 성에 의면당해는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문화시간(영화상영), 풍속적인 관계가 되기 쉬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상제시를 위한 강연시간, 다같이 함께하는 대동행 시간,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분반 토론등의 다양한 시간이 어찌 부러 내일까지 기다립니다.
짧은 일정동안 그동안 배워왔고 습득했던 여성성, 남성성이 일시에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동학교가 다차원적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여성행방이 곧 인간행방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날을 위해 여학생회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 정 희 (경주캠퍼스 여학생회장)

목 먹 골

- 진축공학과 학생회에서 '일일호프'를 준비합니다. 누구든지 놀다 가세요.
일시: 9월27일
장소: 하우방호프 -건 공 화우
■28일은 사랑받는 성인이기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는 생일입니다. 축하해요.
-얼굴을 밝히지 않는 동문선배님이
■불교학과 '91 윤원선씨께 저... 다시 한번 반반 만날 수 없을까요.
-준성이가
■보현형, 연구 잘 하세요. 이 후배가 지켜 볼게요.
-Ann 막내가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낀건 허전할 뿐입니다.
애야! 이서 좋아워...
-89 송지예
■9월20일 일문과 학술부장님이사 추상제연극에 여념이 없으신 이대식(86)선배님의 생일이었습니다.
별 선물은 드리지 못하구요, 마음의 선물로 이 '광고'를 드립니다.
-행을 사랑하는 후배 한마리
■26일 바로 오늘 저의 love하는 동기 Y.JS(양준선-전신91)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Psycho II

동학! 광장

- 오늘(26일)까지 소극장에서 일어난 동국이 공연되고 내일(27일)은 불상앞에서 정제국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3일동안 편지부 절게 그림같이 전시되고요.
많은 관람 부탁해요.
-일문과 학생회
■저어간 연정에 베풀던 얼굴 모양대로 신문사에 드나들던 권준이형의 모습을 형의 군 이미지로 더이상 볼 수 없게 돼 서운합니다.
행! 씩씩한 방위아저씨가 되세요.
-막가는 후배들 올림
■동문회 해오 세번이나 이사했던 전라고 거북이가 상징물인 전라고 전제에서 제일 좋은 전라고 선배와 후배의 정이 어느고등학교보다도 일정한 전라고의 동문회가 열립니다.
일시: 10월19일 오후7시
장소: 남중에서 추후공고
인진: 장학금 지급+선후보 상례제+환상적인 술자리.
-재 동대 전라고 동문회
■대신고등학교 25기 최은호 선배님의 박사학위 취득을 동학의 일백 화하인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환아! 스무해 생일 정말 축하한다. 항상 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을 것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
-친구들

온 방 골

-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
늘녘을 바라만 봐도 풍성한 가을에 햇곡식과 과일도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친자·가족·이웃이 한데 모여 정담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하는 민족의 정이 어느고등학교보다도 일정한 전라고의 동문회가 열립니다.
일시: 10월19일 오후7시
장소: 남중에서 추후공고
인진: 장학금 지급+선후보 상례제+환상적인 술자리.
-재 동대 전라고 동문회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
늘녘을 바라만 봐도 풍성한 가을에 햇곡식과 과일도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친자·가족·이웃이 한데 모여 정담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하는 민족의 정이 어느고등학교보다도 일정한 전라고의 동문회가 열립니다.
일시: 10월19일 오후7시
장소: 남중에서 추후공고
인진: 장학금 지급+선후보 상례제+환상적인 술자리.
-재 동대 전라고 동문회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
늘녘을 바라만 봐도 풍성한 가을에 햇곡식과 과일도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친자·가족·이웃이 한데 모여 정담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하는 민족의 정이 어느고등학교보다도 일정한 전라고의 동문회가 열립니다.
일시: 10월19일 오후7시
장소: 남중에서 추후공고
인진: 장학금 지급+선후보 상례제+환상적인 술자리.
-재 동대 전라고 동문회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
늘녘을 바라만 봐도 풍성한 가을에 햇곡식과 과일도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친자·가족·이웃이 한데 모여 정담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하는 민족의 정이 어느고등학교보다도 일정한 전라고의 동문회가 열립니다.
일시: 10월19일 오후7시
장소: 남중에서 추후공고
인진: 장학금 지급+선후보 상례제+환상적인 술자리.
-재 동대 전라고 동문회

◆ ILO가입과 정부입장의 문제점

ILO조약준수... 노조합법화는 필수

ILO가입과 노동법개정의 연관성

지난 9월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의 ILO가입도 기정 사실로 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의 경우 ILO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정식으로 무조건 수락한다는 통지를 ILO사무국에게 제출하면 그때부터 가입효력이 발생하는데다가 이미 한국정부당국도 연내에 ILO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ILO가입 당사국은 ILO에서 채택한 조약을 비준하게 된다. ILO에서는 작년까지 171개 조약을 채택했는데 가맹국은 이를 선택적으로 비준할 수 있다. 그리고 비준의 시기와 관련해서 매년 6월에 개최되어 8주간 계속되는 총회 회기 종료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국회를 의미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조약 비준당사국이 되면 조약의 규정들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되며, 필요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약을 비준하고도 조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노동단체들은 ILO에 진정할 수 있으며, ILO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해당 정부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변명하도록 권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변명하지 않거나 변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진정내용과 변명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단결권 철폐에 대해서는 ILO이사회가 부설기관으로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설치하여 단결권 철폐여부를 심사하고 탄압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권고하고, 사건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171개의 ILO조약중 어떤 것을 비준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내 노동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약에 따라 정부당국·자본측과 노동운동계는 각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계는 ILO가입을 계기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노동법 개정문제를 오는 11월 민중대회에서 전면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노동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당국·자본측과 노동운동계간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핵심조약비준에 대한 정부입장

171개의 ILO조약중 핵심조약은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제151호(공공서비스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이다. 이들 조약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노동법은 그렇지 못해 노동법개정문제가 제기될 때 행정사상으로도 부각될 것이다.

ILO조약 제87호, 제98호, 제151호가 비준될 때 국내노동환경에 미칠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다. 둘째,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



◆연내 ILO가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노동운동계는 11월 민중대회에서 노동법 개정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제반악법 개폐투쟁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노동법 개정 없는 '겉치레' 처사... 노동현실 왜곡 '사회혼란' 빌미로 노동탄압 여전할 듯

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당국으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진교조가 합법화된다. 셋째, 노동조합법 제3조 5호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노협·인론연맹 등이 합법화된다. 넷째, 노조설립신고제를 채택하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가 해제되고 노조설립자유주의가 정착된다. 다섯째,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로 금지해놓고 있는 제3자개입 금지 규정이 해제된다. 여섯째, 기타 노동조합의 자주적운영을 침해

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조항이 해제된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26조 3항에 규정된 총회소집권자의 행정관청 지명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많은 이용집행부가 민주집행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살피면 바와 같이 ILO 기준에 비추면, 현재 정부당국과 자본측이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국내 노동현실은 근본적으로 동요되고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최근 국회 노동위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듯 하다. 긴박하게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노동부의 입장을 인용해보자. 제87호 조약:아국 등 조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복수노조설립허용, 공무원노조 활동허용 등이 불가피하게 되어 노사질서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제98호 조약:동 조약의 비준에 제3자개입으로 노사분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151호 조약:우리 사회의 경제여건과 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위에서 인용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당국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통한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시키려 하기 보다 케케묵은 '혼란' '남북대치상황' '경제여건' 등의 이유를 들어 사태를 역행하며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온존시키려 하고 있다. ILO의 핵심조약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정부당국의 입장이 확고한 이상 노동운동계와의 갈등은 첨예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노동법등 제반악법 개폐투쟁 전개

ILO가입을 계기로 불법체 밀 노동법개폐투쟁에서 반드시 걸고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노동법등에 의해 노동운동이 탄압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사회에 온존된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제반 악법에 의해 노동운동이 탄압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광역의회선거에서 사무공공노련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특정정당후보를 찍지 말자는 내용을 기안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선거취임으로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사무공공노련위원장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집시법·국보법 등 수많은 전근대적 악법들이 우리사회를 시대감각이 없는 근대화, 나아가 현대사화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운동

법으로 보장된 재벌의 이익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노정권의 제주지역의 미래의 역할을 축적한 방향으로 규정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보장하는 법안추진에서 비롯된다. 91년 정기국회에 제안된 특별법의 실체는 민자당과 중앙부처가 재벌 중심으로 대규모의 관광개발정책을 입안, 집행함으로써 지역인과 균형 있는 국토개발의 대비보다는 재벌

'작은 아름다운이기 때문에 거대한 자들의 거대한 개발은 반자연적일 수 밖에 없다.

세계 반국민적인 지역개발의 논리이다. 법이나 정책은 그것이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여론과 이해를 수렴하여야 한다. 노정권의 특별법의 추진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이 법은 제주도를 제주답게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제정

재벌들만의 전차 '제주개발'

신도시 건설...도민생존권은 '파탄'

집단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네개의 법안이 제시되었는데 90년의 제주도안, 건설부안 지역국회의원안, 기초소위원회안 등이 있었다. 1년 6개월동안 주제를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법률안을 제안한 때는 제주도민의 여론을 감안한 찬성으로 잡아나가는 한편, 이 법안이 담보해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저항없이 확정지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관성을 유도하는 관제공정화와 관여여론화를 끈질기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특별법의 잘못된 내용을 명백히 드러내게 할 뿐더러, 그 법이 보장하는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의 허구성을 반박하고 그 법의 제정을 거부하는 주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정반대운동의 핵심

특별법 제정반대의 핵심은 첫째 반민중적 지역개발의 논리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와 재벌의 경제력 특권화상태에 지역의 자주적 역량은 아예 없을 정도이며, 지역민중의 이익은 점점 무시된다. 특별법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재벌들이 (87년의 국감자료는 5만명 이상 땅을 가진 법인·개인 소유자는 472명)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개발을 보장해 줄 것으로 광활한 중산간에 몇개의 신도시 건설, 수십개의 골프장과 레저타운 건설, 대규모 관광단지 및 국제비행장과 자유항의 건설 등의 개발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반면 인구의 57%를 차지하는 1차산업 종사자는 개발자본이 없고 소유하는 땅의 규모가 작기때문에 땅을 수용당할 뿐더러 농산물 수입 개방과 1차산업위축 정책으로 생존의 근거가 흔들려 임노동자의 위치로 전락한다.

둘째 반자연적인 지역개발의 논리이다. 제주지역의 지형수는 한라산 크기의 산악 지형의 함양을 갖고 있기에 그 지하수가 파괴되지 않는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바다의 관물이 유입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의 식수원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진단은 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인데 대규모의 중산간개발은 지하수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제주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할 것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을 포기하든가 유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있기때문에 이 법의 추진은 반국민적일 수 밖에 없다.

네째 반평화적인 지역개발의 규정이다. 정부가 제주도를 흥풍과 같은 미래의 역할을 담당할 지역으로 기대한다면 제주민중의 역할은 국민이 담보해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저항없이 확정지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관성을 유도하는 관제공정화와 관여여론화를 끈질기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특별법의 잘못된 내용을 명백히 드러내게 할 뿐더러, 그 법이 보장하는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의 허구성을 반박하고 그 법의 제정을 거부하는 주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도민의 반대운동 확산

제주도민의 특별법 저지 열망은 특별법을 반대하는 각계대표 624명의 서명자와 각 지역과 부분이 참여하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제정 반대 범도민회>를 6월 7일 결성해 내민 것보다 조직적인 투쟁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는 제주도민의 의지를 정당하게 표시하는 도민결의대회 추진이다. 범도민회는 9월 19일 제1차범도민 결의대회에서 3천명의 시민이 평화행진을 전개함으로써 87년 6월항쟁이후 최대의 인파를 결집하는 효과와 더불어 도민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범도민회는 10월 중순의 2차대회에서 6천명, 11월의 3차대회에서 1만 2천의 인파를 결집하는 평화적인 결의대회를 추진하려 한다.

두번째는 30만 서명운동의 전개이다. 그 1차목표가 10만인 서명인데, 9월 24일 현재 6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10월에 20만, 11월에 30만 서명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 및 정당에 입법과 취소소요 구해나가는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세번째로는 각 지역별로 장엄회 및 대회를 전개하고 기관지(도민의 함성:1호 9월 15일 발간)를 발간함으로써 제주개발법 폐기와 제주지역의 현실문제 및 미래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대안제시의 기회를 찾고 지역주민운동을 활성화, 체계화시켜 나간다.

네번째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도민투쟁의 특별법 폐기운동으로 전환시키는 민자당 낙선운동과 연세서 정치생존시켜서 나갈 운운으로써 특별법 폐기를 관철한다는 대응논리이다.

고 창훈 (제주대 교수·행정학)

◆ 신대방 강제철거지역을 찾아

지난10일, 동구구 신대방1동 492번지 일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온후 자기네 집들이 산산히 부서진 것을 보아야만 했다.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다.

곳곳에 쌓인 시멘트벽 사이로 보이는 이부자리, 책, 냉장고 등의 살림살이가 말해준다. 이곳 1백30세대 5백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영세인으로 전락했다. 주택조합이 직강연합주택조합을 건설한다는 명목아래 지난89년 이 일대를 매입한후 거주민 이전문제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전경과 백골단을 동원해 지난10일 1백여 가구를 강제철거한 것이다.

"철거 바로 전날인 지난9일에 처음 이사 마지막인 주택조합과 세입자간의 면담에서 조합측은 철거기간 연기를 약속했지요. 그러나 다음날 주민들이 미처 살림살이를 밖으로 옮길 틈도 없이 포크레인들이 집을 그대로 부수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재산도 모두 집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었

다는 한 철거민은 전쟁때도 민간인 집이 이렇게까지 부수어지지지는 않았다며 부서진 자기집 자투리에서 이렇게 울먹였다.

이곳 철거지역에는 지금도 부서진 콘크리트 위에 혹은 함몰된 집벽들 사이에 남은 살림살이와 함께 비닐을 친채 주민들은 살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여기서 정들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사라 한다.

"구경에도 찾아가보고 조합측에도 찾아가 물어본 생활터전을 마



◆지난 10일 '기습'강제철거당해 폐허가 된 집터에 한 할머니가 시멘트 벽에 묻힌 냉장고를 잡고 담담해 하고 있다.

철거민의 '화려한 외출'...주민은 거리로

련해 줄것등을 호소했지요. 그러나 구경에서는 최후까지 부수어지지 않는 두루마리. 이 때문에 일부주민들은 입원치료종이고 조합측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외엔 만나지도 않습니다." 현행법상 철거전에 현주민들과 협상을 봐야한다는 조세상법, 주택법등이 영세민에게는 영구주택을 부여하고 반영세민에게는 생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정측은

철거가 까다롭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해 철거민은 국민으로 대우조차 않고 있다는것이 세입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오후2시쯤엔 주민들 30여명이 공터에 모여 공동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기거양반 이리로서 함께 식사해요"

몇일만에 다들 어찌 식량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함께 나누어가지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며 김치에 고추장을 비빈 밥을 건네주시며 한 할머니가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공터 한 귀퉁이에서 나누기는 '빈민해방'이라고 씌인 깃발은 전쟁 함께 나누어갈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재촉하는듯 했다. (송태명 기자)

自由를 찾습니다.

하나, 하급의 노예가 되게 않고,
두번, 사랑때문에 유교받고
'너죽네 나죽네' 하지도 않고,
셋, 점음년의 자유를 건넌데
만약이면 나는 사랑.
안녕, 너랑 '자유시간'이 함께 할까?
아는 백만장어업인으로부터

자유가 고풍대!
추운날엔 역시!
자유시간
Enjoy the great taste of "Free Time" choco bar.
아몬드 초코바

해태제과

격변기의 월북 작가들

지식인의 자기반성 그린 정치소설 '道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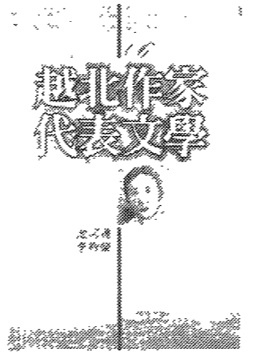
당파성 아닌 인민성의 좌우합작노선 지향



3> 지하련

작가연보

- 1912 전남 거창출생
- 1940 '문장'지에 '訣別' 등 단
- 1941 '滯鄉抄', '가을' 발표
- 1946 '道程' 발표
- 1947 '광나루' 발표
- 1948 소설집 '도정' 출간
- 1953 남편 임화가 '미제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됨
- 1960 평북 회천 교화소에서 격리수용되던중 병사



◇지하련은 해방직후 '도정'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정치소설을 쓰게되었다.

소설가 池河連은 사회주의문학운동 시에서 상징적 존재의 한사람으로 한 때 문학적 명성을 드날린 林和의 아내였다. 古稱을 지낸 원로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상당한 미모에서 문인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가지 전기적 정황을 미루어 보아도 불임설 있는 친교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 지하련이 임화를 만난 것은 1935년 제2차 카프 검거실행이 일어난 후 임화가 마산에서 폐결핵으로 요양중에 있을 때였다. 그 당시 정안에서는 카프 시기적인 인화가 첫째 부인이었던 이귀례(이복만의 누이)와 이혼을 하고 마산에서 이현옥(李現玉)이란 여인과 재혼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물론 그 무렵 동지들은 전우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1912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여학교를 다닌 후 마산으로 귀향한 이현옥이란 여인이 바로 지하련이다. 지하련의 소설 '滯鄉抄'(1941)에 의하면 마산이란 새벽 삼시가 된 기에 체류하면서 고향친구들과 더불어 발붙이려는 장면에서 보여준 바와 같았다.

여자들은 달이 하늘 북편에 올 때까지 바깥문까지 나왔다. 밤에 찬이슬을 맞으면 몸에 해롭다고 해서, 그는 한번도 밤늦게는 밖을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고운 밤인가? 산은 아련하고, 바다는 호수처럼 다정하였다.

라는 표현대로 풍광이 명미하고 공기 좋은, 임화의 도피처로 적절한 곳이다. 삼화는 오빠를 통해 태어난 청년을 우연하게 만났다. 오빠는 그를 살이있는 사람, 생명과 육체가 훌륭한 사람, 풍족한 성격의 남성임을 자랑한다.

'청년이 돌아간 후 아침해서까지, 삼화는 청년을 두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수록 청년이 꼭 젊어서 된 사람 같았다. 한 걸음 벗기면 또 속이 있고, 또 벗기면 속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적이나, 표리부동 하는 상식적인 語言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람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청년은 점차 제법 훌륭한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았나.....'

바로 이 청년이 임화에 다름아니다. 임화는 여러가지의 재주를 지닌 사람이었다. 자기 신원이 위급했을 때는 일부러 졸도를 하는 조화를 부렸다. 일제들이 그를 함부로 체포하거나 연행하지 못했음만큼 임기응변적인 전술전략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지하련이 인간 임화에 매료되어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그의 사상이나 문명보다도 그 사람의 깊이에 현안이 이끌렸던 것 같다.

남편과 함께 귀경한 지하련은 남편의 절친한 벗인 평화가 백철로부터 이례적으로 초회에 천료됨으로써 소설가로 얼굴을 내밀었다. 1940년 전후에 등장한 월북작가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그녀도 많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추천작 '訣別'(1940) 이래 조선이말살정책으로 문필이 꺾일 때까지 남긴 작품은 대어섯편에 불과하다. 여성작가 특유의 미세하고 섬세한 심리묘사의 필치가 사문 일품인 반면에, 거개의 작품이 사사로운 신변의 것달은, 트리비얼한 에피소드의

반박에 불과하다. 혹자는 지하련의 소설을 작가 자신의 내면경향이 반영된 私人觀입을 유다르게 강조했지만, 그녀의 소설 중에 1인칭 시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소설로 보기에 결코 부당치 않다. 그 소설의 장르적 특징은 서사적 수필과 허구적인 自傳小説의 중간지점에 있다. 말하자면 당시 시인비평가 임화가 역사중심적인 인물이라면, 소설가 지하련은 극히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인물이거나 지니지 않았다. 이 점은 등단의 변천 머리에서도 나타나 있다.

'사실 내게는 이렇다 할 포부라고 할 게 없습니다. 혹 평소 바란다고 하였다 하면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저 충실히 혹은 적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지 모릅니다.'

그녀는 애초에 임화의 충실한 내조자로서 만족하려고 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도 젊은 부부간에 있을만한 심리적 갈등이나 경미한 사랑싸움을 소설구성의 전제에서 주된 화제로 삼았다.

그러나 그녀가 작가적 위치로서의 주변성을 스스로 깨닫고 해방직후 '道程'(1946)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정치소설을 쓰게 되었다. 해방기 소설의 대표적인 문제작의 한 편인 이 작품은 문학성의 향기도 절제 배어있지 않으나, 지하련은 이 한 편의 작품을 위해 존재한 작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대의 문제적인 의의를 충실히 발견하고 있다.

이런 내부로부터 심한 허탈감을 느꼈다. 때를 지은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일방으로 열차에서 본 일본 전제민의 참담한 모양을 때를 때를 무정없는 화물차에 머리를 얹고 왔는지 석탄 연기로 환을 그린 얼굴들이 엉려있는 아귀였다. 그는 마을 청년들의 의침에 섞여도 보고 태극기를 단 수백대의 자동차가 끊임없이 왕래하는 서울거리로 만세를 부르며 군중을 따르기도 했으나, 공산당이 생겼다는 벽력같은 소식이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 시선이 어찌가 머물러야 할지 눈앞이 어리송한 게 골치가 지끈 지끈 아프다. 눈을 감았다. 순간, 머릿속에 도깨비처럼 불끈 솟는 괴물이 있었다. 공산당이였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지나날의 당원들이 서울에 모여 당을 재건했다. 이러한 혼돈상황에서 석재의 격심한 자기반성은 작기의 꿈 같은 심리묘사의 필치가 돋보인다. 생각하면 일찍이 그 청년과 더불어 당의 이름을 배울 때, 그것은 실로 엄청난 두려움 것이었다. 그는 친구 기침에 의해 입당을 강요당한다. 그는 붓을 받아 주수와 성명을 썼다.

이제 계급을 쓸 차례이다. 붓을 멈추고 잠깐 망설였다. 부사도 아니고, 혁명가는 더욱 아니었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운동가 모두 맞지 않을 이름들이었다. 마침내 그는 '소부르크'야라고 써 놓고는 급히 밖으로 뛰어 나왔다.

이 작품은 전향자가 겪는 고통으로서의 자기반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전형적인 내면경향을 지향한 좌우합작의 노선이다. 그것은 '운동에 바쳐진 작품의 실천적 노력'이기보다는 남로당의 8월테제인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름이다. 6-25가 끝난 후, 남편은 남로당 숙청으로 처형당했고, 그녀 역시 산간벽지의 교화소에 격리수용되어 병사하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송희복 (문학평론가)

틀어치 천경애



동양철학을 강의하면서 언제나 큰 장애를 느끼는 것이 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모두가 서양철학에 익숙해 있고, 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정의는 보편학이라는 설명과 개념에 의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그 개념적 설명에는 논리적 사유가 필연적이며 이러한 논리적 사유가 체계화 될 때 새로운 창조적 철학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때문에 서양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칸트의 철학' '헤겔의 철학' 등 각각의 철학자들의 철학이론과 그들의 독창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양철학의 경우는 '유학'하면 '공자' '불교'하면 '석가모니'라는 식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유학자, 불교학자, 도가철학자라 하더라도 그 철학의 시조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철학을 실천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까지 결코 독창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독창성이라 해도 공자만 공자가 도달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뿐 성인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불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경-승-논-승-사-가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깨달은 마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의 설명이지 '석가모니'의 말씀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이 명백히 '철학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동양철학은 공자나 석가가 경험한 세계를 그대로 믿고 철학하는

동서철학의 한계

송석구 (문과대 철학과교수)

사람이 그 세계를 도달하기 위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동양철학의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얻어진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니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론과 실천이 따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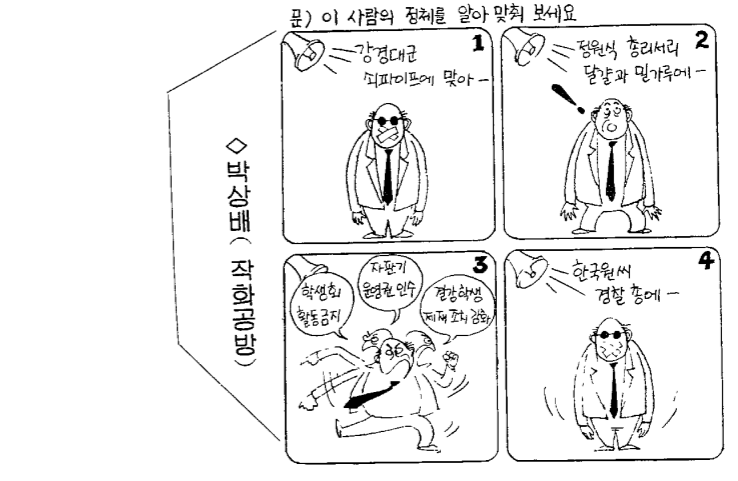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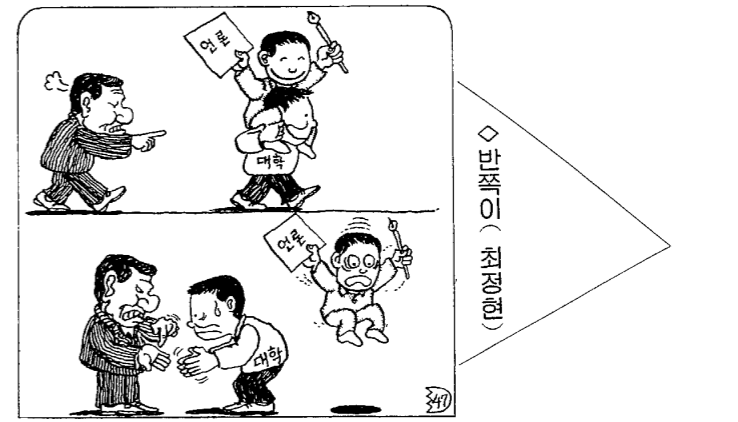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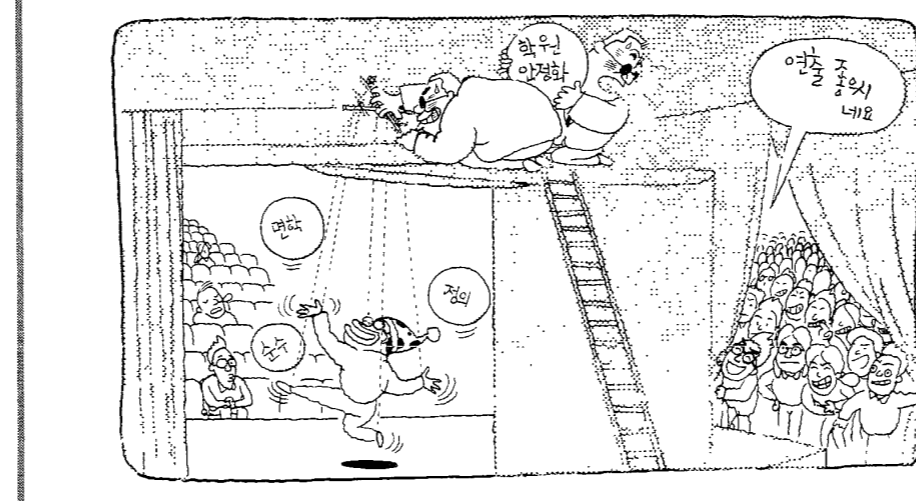
그러나 서양철학의 경우 개념적 사유를 통해 얻어진 현실 세계를 검증하는 방법을 통하여 철학을 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론적인 것이 일차적이지 실천은 부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 있는 철학도 모두 회의의 대상이 되고 그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자기 철학이 설정된다. 그러기에 서양철학은 비판적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다.

동양철학의 경우 우선 소위 '깨달음' '성인'의 경지에 있는 위대한 철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체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은 이러한 체현의 살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심신의 문제이다. 심신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철학적 성취이다. 이때 마음은 신체를 의식한다. 그러나 마음이 추(從)가 되고 의식되는 신체가 종(從)이 될때는 아직 일어가 아니다. 일어가 되기 위해 주인의 마음이 신체를 움직이게한다는 의식없이 신체가 마음이 되고 마음이 신체가 될 때 일어가 된다. 그러기에 동양에서는 고행이 곧 수행으로 실천이요, 이를 통하여 창조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체의 고행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불교의 선(禪), 도(道)의 좌공(坐功), 유학(儒學)의 정좌(靜坐) 등이 이러한 것이다. 누가 이러한 고행을 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개념의 추구인 '관념의 성'이 더욱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서 신체가 아니고 '신체에서 마음으로'의 방법이 새롭게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도 간파해서는 안된다. 삶 그것은 곧 고행이기 때문이다.

초대만평 ◇그림으로 본 학원안정화대책



여러분의 시간은 몇시입니까?

3시? 12시 15분?
낮인지 밤인지 아니면 새벽인지,
시계의 바늘은 한곳을 가리키고 있지만
여러분 마다의 시각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몇시입니까?

캠퍼스저널
CAMPUS JOURNAL

대원·학술·시사·문화·취업·진학·유학·출판 정보 교양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488-1 ☎333-7122, Fax 333-8001, 팩스 741-1661

SINCE 1961

개원 30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역 TEL: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미국어 HEARING	일어문법·독해
문 TOEFL	성문출판영어	(초·중·고급)
이재 TOEFL	성문기본영어	일어 회화
TOEFL GRAMMAR	TIME·영작문	일본어회화
VOCAB 22000	영어 회화	러시아어
영 어 순 해	(초·중·고급)	독어
TOEFL L-C	미국인회화	(초·중·고급)
TOEFL 600	GRE 2000	GMAT 700
M-A English	입사문제해설반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 영어교육학 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요일 40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 2가 파고다공인빌딩 274-4000
강남 압구정동 동호대빌딩 515-4020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어학학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영어사라트	• 일본어 초·중·고급
• TOEFL LC	• 성문출판영어	• 일본어 초·중·고급
• TOEIC	• 성문출판영어	• 고급회화
• GRE	• 영문독해	• 일본어 독해
• AFK시험	• 영문독해	• NHK장르
• TIME	• 성문출판영어	• 중국어 초·중·고급
• Voc 22000	• 영문독해	• 중국어 4급
• Word Power	• 영문독해	• 스토리 출제

10월 1일 개강

파고다공인빌딩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5081~2

과-단체 학술제 다양한 행사 아쉬워

명진제 필두로 10월초까지 계속

내용없어 형식적 행사 인상

서울캠퍼스 각과, 단과대 학술제가 오늘(25일)부터 10월초까지 다양한 행사일정을 준비하지 못한채 개막된다.

이번 단체 학술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년과 달리 침체되고 있고 학술제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적인 양상은 찾을수없어 바람직한 학술제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문과대학에서는 오는 26·27일 양일간 명진제와 단과대 명진제에서 '명진학술문화제'를 갖는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학술퀴즈대회와 노래만담을 시작으로

'어머나 당신의 아들' 영화상영을 비롯 축구, 여자발야구 등 체육대회와 '열전/달리는 문과대' 행사가 준비돼 있다.

문과대 일어일문학과 주최 '제6회 추상제'가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원어연극이 공연되는 것을 비롯해 집체극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김일성(?)을 오늘(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간 교내일원에서 공연한다.

사범대 국어교육과는 제2회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과학자를 학술문화, 체육대회 일정으로 나누어 오늘(25일)부터 28일까지 '다승가요제'를 필두

로 진행한다.

첫째날(26일)에는 25일 전야제에 이어 학림관에서 개막제를 시작하고 퀴즈대회, 비디오영화상영, 학술발표제 등으로 진행된다. 둘째날(27일)은 오후1시부터 모의수업, 대담토론회, 소강당에서 연극의 밤이 있게된다. 셋째날(28일)은 만해광장에서 체육대회를 비롯 감각올림피를 진행한후 폐막제를 갖는다.

전시행사로는 백두산-농활사건전, 시화전이 있으며 좋은선생님상 설문조사발표, 참고록 출판기념회 및 국교과티셔츠 판매도 이뤄진다.

예술대 연영회는 제25회 3학년 하계정기실습공연작품으로 '엘리베이트'를 오늘(25일)

부터 27일까지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작은 사회고발성이 강한 작품으로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고뇌하는 삶이 병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공과대학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원흥대동계'를 대운동장 및 공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신라문화 학술회의

제10회 신라문화학술회의가 오는 27일 경주캠퍼스 원효관 소강당에서 신라문화연구소(소장=김갑주)장립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신라문화의 국제적성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3부로 나뉘어 △1부=신라어의 원류신라말, 이름, 고고학상에 대해 유창규(계명대)교수의 3인 △2부=신라불교조각의

국제성과 신라왕도의 국제성 그리고 신라와 서역에 대해 김이방(홍익대)교수의 3명 △3부=신라문화의 종합개론에 대해 이행구(불교학)교수의 10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된다.

취업정보 전산화

내년초에나 본격가동

취업정보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취업과와 전자계산소간 2차 실무협회가 지난 23일 열려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실무협회는 △출입자 취업현황 입력 △동문 기업인명단 입력 △추천서발급 전산화 작업이 논의됐는데, 일반 취업정보자료는 음성통신과 논의중이다. 그러나 취업정보 전산화의 도입은 예산, 컴퓨터기 구입등을 이유로 내년초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화관에 벽그림

예술대 미술학과 벽그림준비위원회(위원장=백창호·미술3)는 지난 1일 준비모임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실용적인 해화관벽 그림그림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총 응답자 1백5명의 의견을 수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조국통일(45명)'을 주제로 노동자·농민·빈민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게 된다.



1년내내 학생회관 앞에 발치되어 있는 크기리. 매년 4월초파일 제등행렬에 사용될 뿐인 이 크기리는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학교의 공간문제에 한몫을 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공인회계사 6명 합격

윤학섭군등 2차시험에

본교 윤학섭(이부정영)군과 황의문(회계)등문등 총 6명이 제26회 공인회계사(CPA)시험에 최종합격했다.

합격자중 성금순(이부회계)은 26일부 실시된 2차 시험에 합격했다. 성금순(이부회계)은 26일부 실시된 2차 시험에 합격했다. 성금순(이부회계)은 26일부 실시된 2차 시험에 합격했다.

'학복위 사업공개' 등 지적

예산감사 끝으로 1학기 통신감사 마무리

학복위위원회(이하 학복위) 1학기 통신감사가 10월초 예산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대 감사특위는 지난 18일 학복위에 △8월 예·결산서 △1학기 특별사업비 명목 △우정 장학금지급금 적립금 내역서 등을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구두통보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10월초 예산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민족동악 새날학교' 열어

남북관계 전망등 초청강연

'민족동악새날학교'가 제23대 총학생회주최로 오는 30일 오후5시 본관 중앙당에서 열린다.

초연사태이후 남북관계전망, 남북UN분리기입후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날학교는 비핵군축 전문가인 김창수(평화연구소 연구원)씨가 초청돼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련사태의 발생원인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비핵군축, 연방제와 관련해 남북UN분리기입에 대한 이후 전망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불상 중건 학교·학생간 이견 여전

학교 청동본색 도금 학생 석상으로 교체

성성중건운동이 학교당국의 교정불상자문위원회(위원장=서윤길 권리처장)와 학생측 성성중건추진위원회(위원장=문병렬 불대학생회장)간의 중건계획안의 이견표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당국의 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교정불상중수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1차 자문회의석상에서 결의된 불상본체를 청동본색으로 할 방침을

잃어버린 부처님 미소

○...제2의 탄생을 기대하며 한창 기뻐하시던 불상님(?)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일그러져 있다는데...

이유인즉 불교대학생회가 지난 여름방학부터 추진해온 불상중건이 학교측에서 마련한 '교정불상중수자문위원회'와의 마찰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실천이 아닌 말로만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것.

점적사고 기뻐하는(?) 학생들 속사정...자가용족은 아닌지

원정군의 진상조사 결과는 '신의뜻(?)'이었다고 알려져. 그것은 사전현장조사에 나선 국회 진상조사단이 발표자언 모경위에 대해선 한차례 험악도 없이 형식적인 조사로 시종일관 하다 모여달 의원의 "맞은사람만 제수없지"라는 말과 함께 출연

목숨 내건 무법자들

○...목숨을 내건 모험가(?)들이 동악에도 출현해 주목을 받고있는 중이라고.

지난9일밤 사범대 건물 5층에서 술에 취한 모험가가 건물아래로 떨어져 크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가 하면, 24일밤에는 학교 주변 불타매와 본교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후문앞에서 병을 깨고 난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도서관 모범 이용상등 시상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관장=홍영백·시학)은 독서관간을 맞이하여 '제3회 도서관 모범 이용상'및 '봉사상'을 오는 27일 오전11시 총정실에서 시상한다.

수상자를 보면 모범이용상에 △박여주(물리2) △김상수(식공2)군등 대출량(50권이상)을 보인 학생과 과제도서실에서 근무장학생으로 봉사하는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도서를 부상으로 전달한다.

충기사상은 신의 뜻(?)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충기사상전에 대한

경주총학 2학기 진군식

경주캠퍼스 제91대 총학생회(회장=오규석·한외학2) 2학기 진군식이 지난18일 오후1시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18일 오후1시 교내 녹야원에서 열렸다.

이번 진군식은 1학기와 방중사업을 평가·경리하면서 2학기 총학생회의 강화및 각 단과대 연대하여 1학기 미흡했던점을 보완하고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들을 실천하기위해 열린 진군식은 1부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 발대식, 2부는 총학생회 2학기 진군식, 3부 핏줄이 행사로 진군교사와 국수

다들 물어봐

○...학내주차문제 쪼를 내린 학생들이 "드디어 사라졌고, 자가용도 단속, 외부차량통제에도 아랑곳없이 차를 몰다녀 결국 사고한번씩 만 나야 정신차리는 자가용족에게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동악이 온통 교통사고지옥(?)이 된뒤에 자가용들만이 사라지는 비극은 없어야 겠지요"

다들 물어봐

○...학내주차문제 쪼를 내린 학생들이 "드디어 사라졌고, 자가용도 단속, 외부차량통제에도 아랑곳없이 차를 몰다녀 결국 사고한번씩 만 나야 정신차리는 자가용족에게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동악이 온통 교통사고지옥(?)이 된뒤에 자가용들만이 사라지는 비극은 없어야 겠지요"



"공기·물·그리고 전기"--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 입니다.

첨단기술을 향한 한국전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풍요로운 전력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전기.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은 발전소 건설과 첨단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와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라소비로 대학문화 '흔들흔들'



◇학교주변에는 언제부터인가 술집 특히 호프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호프로 가득차 있는 층무로

대학가 문화 이대로 좋은가

최근들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무관심, 단순한 쾌락만을 즐기는 경향, 외래문화와 향유 등은 과소비와 퇴락·향락문화의 도입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하철역 층무로와 동대입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술집, 음식점, 카페, 각종 상점. 이곳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하나의 '상업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

어두워지면 이 거리는 술취한 학생들로 가득하다. 골목귀머리가 여기 저기서 음식물을 토해내는 모습, 술로 만신창이가 된 학생을 발견하면 서글서글하는 여러 학생들, 심

지어는 비스무리한 데모에 관한 의식을 가진 신촌연대와 건대입구에서 화양리 일대, 한양대 주변 등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예전과는 달리 경제적 제약이 없는 학생들이 무작정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비문화로 인해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건대를 추구하고 정의를 갈구하는 지식인으로 대표되던 대학생들이 언제부터인가 불건전한 술 노래, 춤을 학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한때 층무로를 주의깊게 건다보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회관 아래 농연동선엔 오후5시만 되면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른다. 게다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강의실에 들어와 잠을 자는 학생도 간혹 눈에 띈다.

또 동아내 야경은 볼 만하다. 남녀학생들이 애기를 나누면서 나란히 걸어나가 있는 반면 밤이 되면 학림관앞 톱비니동산 명진관뒤 라스베가스 정각원, 역경원, 만해광장 등에서 남녀학생들의 지나

던 학생들의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행정색의 요란한 형광색 티셔츠와 허벅지가 완전히 드러난 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여학생.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기본 남학생. 귀에 이어폰을 끼고 무슨 신나는 음악인지 연신 고개를 흔들며 몸을 비틀거리는 학생들. 바로 외래문화의 부산물이다.

UR등 수업개방을 반대하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레 이들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고만 있을뿐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술집만 하더라도 호프만 계속 중가하는 추세로 학생들은 여기에 흥청망청 돈을 뿌린다. 단적인 예로 들자면 맥주를 마시려면 최소한 1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뒤질새라

민속주점, 카페들도 가격을 올려 파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차 마시기' '우리말 사랑하기' '우리말 웃이기' 등 우리것을 찾자 하는 생활문화운동에 역행해 날로 늘어나는 호프판카페, 호프당구장, 오락실 등과 외래문화의 유식함. 뿌리를 잃고 해매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화. 몇년전부터 급격히 자유로워진 대학생. 그러나 이는 자유를 지나쳐 방종을 낳고,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풍조아래 파소비를 만연시키고, 퇴락과 폭력을 낳고... 현재 대학문화는 이성을 잃고 제갈 길을 못찾고 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조금만 더 생각할게 있지 않은가 한다. (이경애 기자)

동국사랑하기운동 퍼고있는 '보살사상연구회'를 찾아

"안녕하세요. 보살사상연구회입니다"라며 아침 등교시에 도서관, 중문, 후문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학생들을 동약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유인물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동아곳곳의 터를 불교의 교리와 역사속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예를들면, 정각원의 유래에 대해 조선광해군8년(1616)에 세운 경회궁의 정전에 배치된 승정문, 여춘문, 자정문이 순조29년(1829) 대화재 때 승정전만이 피해를 면해 1926년 동아내 북쪽에 이전한 뒤 건물은 노후되어 1976년 9월 원위치에 원형대로 이전·복원되었다는 역사적 유래를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국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8차례에 걸쳐 이런 색다른 유인물을 제작해온 계기에 대해 보살사상연구회 회장 최희환(불교3)은 "지난달 불상중건운동이 시작될 즈음 동아인 개개인에게 동국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이루어지도록

"불상중건운동은 동국사랑하기부터"

많은 채 홍보·모금운동이 벌어져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살사상연구회는 새로운 불교사상연구를 통해 정토세계를 구현하고 불교종립대로서의 건학이념을 보존하고자 지난85년에 조직된 현재 30명의 회원이 있으며 정기적인 예불과 방중학급, 주1회의 세미나 등 전공을 살려가는 불교대내 학술소모임이



◇도서관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학생들

시는 아침마다 돌려보는 등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다. 이처럼 반응이 좋아 보살사상연구회는 '불교에서 나온 말'을 20편까지 더 제작하고 새로운 기획으로 성상중건이 끝나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내의 많은 정치적인 유인물들 속에서 이같은 보살사상연구회의 유인물배부는 예외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매년 4백여장의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한강 더미'라는 직원들도 있고 이미 직원들 사이에

불교사상 연구로 건학이념 보존 노력

그리고 '동국사랑하기'에 이어 보름전부터는 매일 오전8시 불상앞에서 있는 아침예불이 끝나면 '불교에서 나온말'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미 6회정도 배부된 이 시리즈는 민중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우리가 흔히 쓰는 불교용어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불교를 수

고 더욱 진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연습할 수 있었으며 날씨가 너무 더울때는 즉흥적인 피서발상에 의해 이동하기도 편했다. 반면 수가 적다보니 의견차이가 생겼는데 많은 이야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다가 극한에 치우치기도 하고 3학년 워크샵에서 존폐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성장을 위해 겪는 어려움의 싸움처럼 우리의 성장을 위해 겪는 싸움의 경험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면 서 공연을 코앞에 둔 오늘에 이르렀다. 이젠 모든 연기자와의 정쟁은 끝나가고 무대, 조명, 음향등의 작업으로 씨름할 시간이다. 아직은 아다주어서 완벽한 스펙트럼의 분화가 없기때문에 모든 것들이 연습의 머릿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 얼마나 밤을 새게가 작업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김만중 (예술대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 제252회 하계정기실습공연



◇'엘리베이터'의 마지막 연습 장면

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연습은 최후의 방법으로 강압적으로라도 적용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엘리베이터안에 상민을 가두어 놓고 치료를 시작한다. 이처럼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기를 보면 나의 판단은 상민의 부적응상태에서 나오는 정신병적 증세보다는 연습의 평범해 보이는 모습에 집중했고 그 평범한 모습을 상민으로 대는 새로운 현대인의 정신병으로 제시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고 구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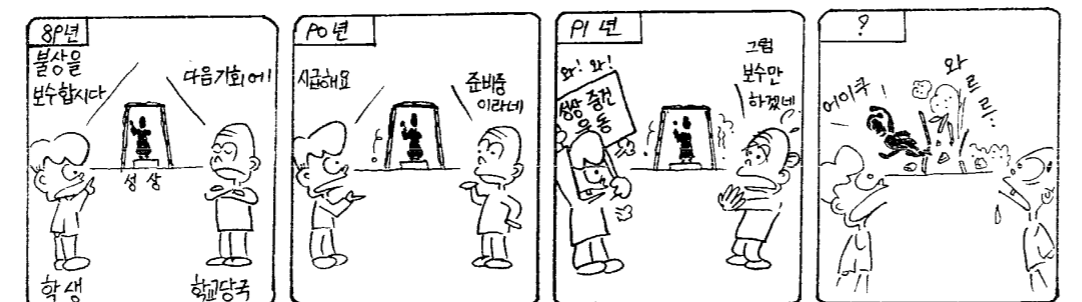
이재현 작 '엘리베이터' 김만중 연출

연극영화과 3학년 학생들이 만든 '엘리베이터'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연극영화과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본란에는 작품실정에서 현재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연습과정을 실는다. <편집자>

고 그것의 길잡이인 도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불편을 느낀다. 생활에서 모든 기호를 끊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했다고 느끼는 평범한 상태인 것이다. 우리들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을 없애고 살아보고 하면 과연 순수히 용락을 할까. 이렇듯 이런 떨어져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문명의 이기에 대한 집착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만연된 정신병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연습에 임했다. 새명이라는 단순한 인원으로 모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론은 접도 많았다. 연습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았



송태영 (17)



쌍용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1990년 당시 사원인 조규희의 생일 축하모임

쌍용인력관리위원회 모집회사: 쌍용양회, (주)쌍용, 쌍용중공업, 쌍용건설, 쌍용투자증권, 쌍용저축은행, 쌍용저지 고려회계, 쌍용컴퓨터, 쌍용엔지니어링, 남양정보, 쌍용정공, 쌍용저렴개발

-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모집 학과	인원
관리사무원	상경계(경영, 경제, 무역, 회계), 법경제(법학, 행정, 기타인문사회계(사회, 심리, 교육), 영어, 일본어)	180명
기술직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무기재료공학, 자원공학, 산업공학, 전자계산학	270명
명예직	인문·이공계 전과	50명
- 2. 응시자격**
가. 1963년 1월 1일(석사: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나. 4년제 정규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1992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현역부부중인 자는 1991년 12월 말 이전 전역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당첨률 조정양식) 1부
나. 대학 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 간: 1991년 10월 7일(월)~10월 16일(수) 10:00~17:00(공휴일도 교부함)
● 교 부처

지역	교 부 처	전화번호
서울	중구 저동2가 쌍용빌딩 4층	02) 270-50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쌍용투자증권 서면지점(조용동빌딩)	051) 818-8111
대구	중구 덕산동 쌍용투자증권 대구지점(덕산빌딩)	053) 423-7700
광주	동구 금남로2가 쌍용투자증권 광주지점(쌍용빌딩)	062) 232-0707
대전	중구 신화동 쌍용투자증권 대전지점(소정빌딩)	042) 255-9131

- 나. 접 수
● 기 간: 1991년 10월 10일(목)~10월 16일(수)
(평일 10:00~17:00, 토요일 10:00~13:00,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저동2가 쌍용빌딩 18층 원서접수처
(우편접수시: 100-641 서울시 중랑구제곡 사서함 4106로 쌍용인력관리위원회)
-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91년 10월 26일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7. 필기시험**
가. 과 목: 영어, 상식
나. 일 시: 1991년 11월 3일(일) 09:00
다. 장 소: 국민대학교(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8.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9. 기 타**
가. 우원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수료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예정)
나. 국가유공자 자녀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가점혜택부여 (해당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할 것
● 전화번호: (02) 270-5016, 5020 쌍용인력관리위원회